

LG산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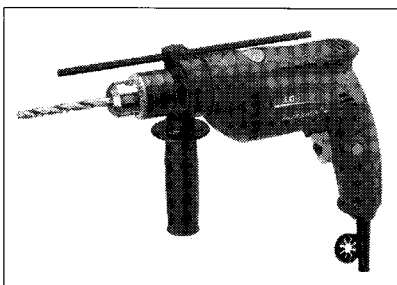
서울국제공구 및 관련기기 전시회에 새로운 디자인 전동공구 출품

LG 산전(대표 : 김정만)은 지난 20~23일까지 코엑스(COEX) 태평양 홀에서 열리는 「서울국제공구 및 관련기기 전시회」에 신제품 12모델을 포함하여 총 44모델의 전동공구를 출품하였다.

이번 전시회에 10부스(가로 15m×세로 6m) 규모로 출품하는 LG산전은 전동공구 신제품 12모델을 전시할 신제품 명품관과 수출전용 모델을 선보일 존(Zone)을 따로 마련, 고객들의 전시 관람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시관을 기획했다.

LG산전은 역동적인 근육질의 강력한 이미지를 형상화한 뉴 디자인을 적용한 임팩트 드릴(모델명 : D1013)과 고속절단기(모델명 : C514)도 이번 전시회에 선보인다.

고속절단기의 경우, 실버 메탈의 안



〈임팩트 드릴〉

전커버를 적용해서 손잡이의 플라스틱 재질과 대비시켰다. 또한 핸들을 일자형과 D자형으로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주와 동남아시아 고객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임팩트드릴은 콤팩트한 사이즈면에서도 볼륨감을 고려하여 강력한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현대중공업(주)

신 용접기법 개발로 경쟁력 높여

현대중공업(대표 : 최길선, 민계식)이 업계 최초로 Co2 MAG 용접기법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현대중공업이 개발한 Co2 MAG 용접은 기존 Co2 가스와 플럭스 코오드 와이어(FLUX CORED WIRE)를 이용해 용접하던 FCAW 기법 대신 Co2 가스와 아르곤 가스를 각각 20:80의 비율로 혼합해 사용하며 와이어도 솔리드 와이어(SOLID WIRE)를 사용한다.

기존 용접기법보다 용접품질을 월등히 향상시킨 Co2 MAG 용접은 이 회사 자체 연구소인 산업기술연구소 용접연구실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개발에 성공한 용접기법으로 업계에서는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현재 Co2 MAG 용접

기법을 조선 생산 공정에 폭넓게 적용하고 있으며 상당한 생산성 향상의 효과를 보고 있다.

그 동안 Co2 가스만 사용해 용접할 경우 발생되던 여러 가지 용접 결함이 완전히 사라져 선주의 신뢰가 높아진 것도 큰 이득이다.

현대중공업은 생산직 사원의 고령화 등 생산성 향상이 한계에 다다르자 신기술 및 신공법 개발, 자동화 등을 통해 이를 만회하기로 하고 특히 조선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중에 하나인 용접작업에 대한 신기술 개발에 주력해 왔다.

현재 용접 자동화율을 30% 가까이 끌어올린 현대중공업은 앞으로도 용접 자동화 개발에 더욱 주력하는 한편 블록 총조공법 개발 등을 통해 생산성 및 품질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현대중공업의 이같은 노력은 향후 10년 정도면 거의 대등해질 중국 조선의 무서운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것으로 신기술 개발만이 경쟁력 우위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판단이다.

두산중공업(주)

태안 화력발전소 7, 8호기 건설공사 수주

두산중공업(사장 김대중)이 태안 화력발전소 7, 8호기 건설공사

를 1,300억원에 수주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13일 한국서부발전(주)에서 국내 업체 9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1000MW(500MW X 2기)급 태안 화력발전소 7, 8호기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주에 따라 두산중공업은 기초 굴착공사와 본관 및 터빈/발전기, 주제어실, 보일러 등의 건축 토목공사를 오는 2007년 8월까지 수행하게 된다.

태안 화력발전소 7, 8호기 건설 공사는 올 들어 처음으로 발주된 500 MW급 발전소 프로젝트이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그 동안 태안, 당진, 하동, 보령, 삼천포 등 총 20여기 이상의 화력발전소 건설을 수행하면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완벽한 품질의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말하고, “이번 수주로 향후 발주될 후속 공사 입찰에서도 좋은 위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기술(주)

KOPEC, 녹색경영대상 청정기술부문 최우수상 수상

한 국전력기술(주)(KOPEC, 사장 정경남)는 8월 28일 그랜드힐튼서울 컨벤션센터에서 한국능률협회

가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한 제2회 대한민국 녹색경영 청정기술 부문에서 가장 우수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녹색경영대상은 ‘환경보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기업 및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금년 3월 분당 복합화력발전소에 설치한 저온 탈질 상용 플랜트에 대해 이번에 수상한 저온 탈질 시스템은 종합 성능평가 결과, 기존 외국산 촉매를 설치한 것보다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으며, 플랜트 설계, 시공 및 시운전은 물론 탈질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촉매의 제조 전 과정을 완전 국산화하였다는데 평가 위원들 사이에 큰 반향을 일으켜 KOPEC은 수상기술에 대하여 대표강연을 하게 되었다.

이번에 KOPEC이 수상한 기술은 발전소, 소각로 등의 연소설비 가동시 발생하는 인체에 유해한 질소산화물을 환원제인 암모니아와 촉매 표면에 서 반응시켜 무해한 질소와 물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하는 시스템으로 탈질 시스템은 환원제를 저장, 이송, 공급하기 위한 계통과 환원반응이 일어나는 촉매 반응단 계통으로 구성된다.

외국의 탈질기술은 질소산화물과 환원제의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170~300℃로 배출되는 연소가스를 가열하여 300~450℃ 이상으로 올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부수적인 설비와 추가연료가 필요하고 촉매의 원료물질이 백금(Pt), 바나듐(V) 등 희귀광물이므로 전체 시설의 가격과 유지관리비가 매우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 수상한 KOPEC의 저온 탈질 시스템은 연소가스가 낮은 온도 상태에서 반응하는 국산 망간계 저온 탈질촉매를 사용함으로써 별도의 연소가스 가열설비가 필요하지 않으며, 촉매의 질소산화물 제거 효율도 우수하여 외국설비가 저온에서 50%인데 비해 그 효율이 80% 이상을 나타내어 외국 촉매에 비해 작은 부피의 촉매로도 기존의 외국촉매가 나타내는 질소산화물 제거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또한, 천연 망간광석을 원료로 제조된 촉매가격도 매우 저렴하므로 탈질설비 설치운영비가 기존의 외국기술에 비해 약 20~30% 이상 절감되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 동안 KOPEC은 국산 망간계 저온 탈질촉매를 장착한 파일럿 설비를 2000년 10월부터 서울화력 및 분당 복합 화력발전소에서 운영한 결과를 근거로 2001년 12월 환경부로부터 환경신기술로 지정받았고, 2003년 4월 산자부 신기술 인증을 획득하였다. 특허 인증은 2000년 9월 국내 특허 획득, 2003년 2월 중국 특허 획득 및 6월 미국 특허를 획득하였고, 현재 일본, 독

일 등에 국제 특허가 심사 중에 있으며, 상기 기술을 개량한 석탄 및 증유용 탈질 촉매에 대한 국내 특허와 탈질/다이옥신 동시처리 촉매에 대한 국내 특허도 획득한 바 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KOPEC은 환경 친화적인 기업이라는 환경이미지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향후 10년간 총 수요규모가 약 1조원 대에 달하는 질소 산화물 저감시장에 국산화의 길을 열어 기술개발과 영업과의 연계성을 부여하게 되는 그런 마케팅으로 회사의 대체 사업개발 경영방침에 부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동서발전(주)

‘직원만족 경영’ 본격 추진

한 국동서발전(주)(사장 이용오)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 내부결속력 강화를 목표로 ‘직원만족 경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은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이고 차별화된 복지제도를 도모하기 위해 생활안정 가계자금 대출과 국내외 문화체험 패키지 프로그램을 새로이 마련하여 직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이 추진하고 있는 생활안정 가계자금 대출은 기존의 기업-금융간 협약에 의한 담보대출이 아닌

외환은행과 서울보증보험이 참여하는 기업-금융-보증보험의 3자 협약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가계 대출로 연리 5.7% 내외의 저리로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한국동서발전 관계자에 의하면 1차로 총 192명에게 60여 억원의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며 그 동안 생활안정 자금이 절실히 필요했던 직원들에게 담보 없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혜택이 고르게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복지 포인트를 이용해 제주도, 일본, 북경, 마닐라 등의 국내외 지역을 다녀올 수 있는 문화체험 패키지 프로그램은 내년에는 유럽, 오세아니아, 미주지역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가족들의 정서함양과 자기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어 향후 타 기업체들의 복지모델 개선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한국동서발전의 ‘직원만족 경영’은 최근 선포한 중기 비전 「ACE 2007」과 연계하여 내부의 결속이 우선되어야 조직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는 이용오 사장의 경영 철학이 바탕이 된 것으로 회사를 ‘기쁨과 보람 그리고 화합의 일터’로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한국동서발전 관계자는 “직원들의 애사심과 회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

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회사를 ‘일할 맛 나는 일터’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부터 전 직원의 배우자와 독신직원들의 생일을 직접 챙기고 해외 유학, 해외사무소 파견근무 제도를 새로이 도입, 직원들의 자기개발의 기회를 다각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한국동서발전은 수혜자의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참신한 복지 프로그램을 연이어 개발해 내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직원들의 기대가 사뭇 커지고 있다.

한국남부발전(주)

제3기 제1차 임시주주총회 개최

한 국남부발전(주) 제3기 제1차 임시주주총회가 8월 26일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이사회 회의실에서 한전 주주 및 이임택 사장과 이병준 감사, 최규탁 경영지원본부장, 박채욱 기술지원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발행주식 총수 4,618만주 중 의결권 있는 주식 100%(4,618만주) 참석으로 회의성립이 선포되고, 감사보고, 이사선임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회의결과 한전 기획본부장인 이희택 씨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하였다. ■